



연구논문

한국어 대역사전 외래어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영·영한 대역사전에 수록된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정동경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평생교육원, 국어사 전공

pureunolive@gmail.com

I. 머리말

II. 사전별 외래어 목록 수

III. 외래어의 표기 방식

IV. 외래어의 조어 방식

V. 외래어의 의미 범주

VI. 외래어의 출현 횟수

VII. 맷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대역사전 중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 언어로 한 한영 대역사전과 영한 대역사전을 중심으로, 이들 사전에 등재되거나 기술된 서구 외래어(이하 외래어)의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국내에 유입된 서양 문물과 사상은 사회 구조 및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어학의 관점에서는 특히 어휘론의 영역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즉, 개항과 함께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이들을 가리킬 만한 어휘나 표현을 한국어 현실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급증했다. 이렇게 외국에서 유입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이 국내 언어 환경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선택된다. 즉, 외국어의 뜻을 한국어의 고유어나 한자어로 번역하여 받아들이는 방법과 외국어의 소리를 한국어 환경에 맞게 대치하여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중에 후자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유입되어 널리 사용되는 외국어를 흔히 외래어라고 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외국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의 수용은 한국어 역사 전반에 걸쳐 있었으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3124).

이 글의 내용 중 Ⅲ장과 관련하여 한자 음역어의 유입 경로 조어 경위를 한·중·일의 한 자음을 고려하여 고찰할 것을 조언해 주셨으나 시간 및 여러 제약으로 그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모두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며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전한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들어 그 양이 대폭 늘어났고, 유입되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 이러한 변화 아래 고종은 1894년에 외국의 국명이나 지명, 인명은 모두 국문으로 번역하여 적는다는 법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¹ 하지만 일상에서 통용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외래어로 표기된 어휘의 수는 계속 늘어갔고 1920년대를 거치며 그 수는 더욱 증가했다.² 그 결과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어생활에서 외래어의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처음으로 외래어 표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1935년 이극로의 「외래어 표기에 대하여」를 시작으로 하여 외래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³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따라 외래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중 20세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꾸준히 논의된 주제를 중심으로 언급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설정의 문제이다. 즉, 외래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어가 우리말에 귀화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외래어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다.⁴ 둘째,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1 『高宗實錄』 31년(1893) 7월 8일, 네 번째 기사,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파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凡國內外公私文字 遇有外國國名 地名 人名之當用歐文者 俱以國文 編繙施行事. … 竝允之]”.

2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 잡지 1면당 사용되는 외래어의 수가 이전보다 3.38배 늘었다. 정희원,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2004), 5~22쪽.

3 이극로, 「외래어 표기에 대하여」, 《한글》 3-6(1935년 7·8월호), 357쪽.

4 정희원, 앞의 글(2004), 8쪽.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희승, 「외래어 이야기」, 《춘추》 2-3(1941년 3월호), 258~273쪽; 김민수, 『국어정책론』(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이현복·임홍빈·김하수·박형익,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태학사, 1997); 이상혁, 「외래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5(2002), 101~123쪽;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18-4(2008), 5~32쪽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온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문제점에 관해 논했다.⁵ 마지막으로 외래어의 사용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제법 진행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졌던 논의는 크게 ‘외래어가 국어 안으로 편입될 때 국어화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체할 만한 적당한 한국어 단어가 없을 때 외래어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⁶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이 되는 개화기 및 개화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외래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 또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첫째, 개화기 외래어의 표기 및 표기법을 주제로 한 연구로 이 시기의 외래어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대부분은 개화기 시기에 간행된 『서유견문』(1895), 신문 및 잡지, 학습서, 관보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일부 자음이나 모음의 외래어 표기 및 음운학적 특징을 고찰했다.⁷ 둘째, 개화기에 유입된 외래어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가 있다.⁸ 마지-

5 이에 속하는 논의로 남광우,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국어국문학』 68·69(1975), 297~302쪽; 이기문,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국어국문학』 68·69(1975), 296~297쪽; 이상억, 「외래어 표기법 문제의 종합 검토」, 『말』 7-1(1982), 57~75쪽; 박창원·김수현,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2004), 59~102쪽 등이 있다.

6 전자의 입장에는 이극로, 앞의 글(1935), 357쪽, 후자의 입장에는 김태종, 「신어 외래어에 대하여 1」, 《한글》 4-1(1936년 1월호), 560~562쪽 등의 논의가 있다. 이 외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로 조남호, 「한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 39(2014), 13~38쪽 등이 있다.

7 이에 속하는 논의로 박영섭, 「개화기 외래어 표기에 대한 고찰」, 『어문론집』 17(1984), 21~33쪽; 이병근, 「개화기 어문정책과 표기법 문제」, 『국어생활』 4-4(1986), 24~45쪽; 한성우, 「개화기 신문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어문학』(2007), 281~309쪽 등이 있다.

8 이에 속하는 논의로는 강신항,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2(1985), 23~36쪽;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5: 외래어 편』(서울: 박이정, 1997) 등이 있다. 특히, 박영섭, 앞의 책(1997)은 개화기에 간행된 교과서와 신문, 소설에 산재된 외래어를 수집하여 외래어 표기 양상을 고찰했다.

막으로 특정 문헌을 대상으로 한 외래어 연구가 있다. 이 중에 많은 논의가 1937년 이종극이 편찬한 『모던조선외래어사전』에 치중되어 있다.⁹

이와 같이 지금까지 외래어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래어의 개념 및 범위 설정의 문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화기 및 개화기를 전후로 한 시기의 외래어 연구 역시 외래어 표기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상 자료도 신문이나 잡지, 학습서 등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간행된 여러 분야의 문헌 자료에서, 특히 어휘론의 관점에서 대역사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또한 영어를 대상 언어로 한 대역사전은 10종이 넘는다. 한편, 이 시기에 간행된 사전은 현대의 사전과 달리 사전이 지니게 되는 규범성 외에도 언어 생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알리고자 하는 개신성, 최신성이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즉,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및 한국이의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편찬된 이들 사전이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당대의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어휘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같은 어문 규범이 제정되기 이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규범에 구애를 받지 않아 당대의 언어적 특징이 비교적 충실히 나타날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글에서는 이 시기의 대역사전에 수록된 외래어를 고찰하되, 여러 언어로 간행된 대역사전 중 한영·영한 대역사전만을 대상 자료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당대에 간행된 대역사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당시에 새로이 생겨난 외래어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서

9 이와 관련한 논의로 김수현,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외래어 표기 분석」, 『이화어문논집』 21(2003), 249~271쪽; 김한샘,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인문언어학적 연구」, 『배달말』 55(2014), 25~54쪽; 안예리, 「1930년대 사전의 외래어 수용 양상: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과 조선어사전(1938)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51(2020), 7~34쪽 등이 있다.

구어에서 기원한 외래어이므로, 영어를 포함한 서구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래어를 관찰하기에 좋은 자료라 생각되기 때문이다.¹⁰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서지 사항은 <표1>과 같다.

표1-한영·영한 대역사전의 서지사항

간행 연도	편저자	서명	출판사
1890	H. G. Underwood	韓英字典 한영주던(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Yokohama: Kelly & Walsh; London: Trubner & Co.
1891	J.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7	J. S. Gale	韓英字典 한영주던(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Kelly & Walsh
1902	J. W. Hodge	Corean Words and Phrases: Being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2nd ed.)	Seoul: The Seoul Press-Hodge & Co.
1911	J. S. Gale	韓英字典 한영주던(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1914	G. H. Jones	英韓字典 영한주던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Kyo Bun Kwan
1925	H. G. Underwood & H. H. Underwood	英鮮字典 영선주던(An English-Korean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8	金東成	最新鮮英辭典(The New Korean-English Dictionary)	京城: 博文書館
1931	J. S. Gale	韓英大字典 한영대주던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0 이종극은 楠桓實의 영어와 영어 이외 외래어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言海』(1889), 『舶來語便覽』(1912), 『日本語となつた英語』(1931)와 같은 일본 외래어사전에서 영어 비중이 18%, 75%, 89%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당대에 생겨난 외래어의 대부분이 영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이종극, 『鮮和兩引 모던朝鮮外來語辭典』(京城: 漢城圖書, 1937), 1~12쪽]. 물론 이는 일본의 예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외래어의 범위는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서양에서 들어온 어휘로 어휘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음역(音譯)된 것으로 한정한다. 외래어의 범위를 논할 때는 외국어와의 구분을 문제 삼게 되는데 외래어의 개념을 폭넓게 생각했을 때에 한국어 화자가 한국어의 사용 맥락에서 외국어 어휘를 쓴다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외래어가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따라서 외국어와 외래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¹¹

이 글에서는 먼저, <표1>의 사전에서 수집된 외래어를 여러 기준으로 계수하여, 각 목록에서 보이는 각 사전의 특징을 살핀 다음, 수집된 외래어의 표기 방식과 조어 방식, 의미 범주에 따른 분류와 중복 등재 횟수를 살펴 각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의 특징을 여러 관점에서 고찰했다.

II. 사전별 외래어 목록 수

먼저, 이 글에서 수집된 외래어 목록을 여러 기준에 따라 계수한 것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의 첫 항목은 한영사전의 경우 외래어인 표제어를, 영한사전의 경우 표제어 대응 외래어의 수를 가리킨다. 팔호 안의 숫자는 각 사전의 전체 표제어 수로, 전체 표제어 수 중 외래어가 표제어 또는 표제어 대응 외래어로 출현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명기했다. 이를 통해서 초기 사전에서는 외래어의 수와 그 비중이 작았지만 1910년대에 이르러 출현한 외

11 심재기, 『국어 어휘론 개설』(서울: 지식과교양, 2011), 46~47쪽을 참조. 용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서구의 언어, 즉 영한 대역사전에서의 표제어와 한영 대역사전에서 표제어에 대응하는 어휘를 ‘서구어’로, 영어 표제어에 대응하는 기술어가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를 음역한 것은 ‘외래어’라 칭하기로 한다. 한편, 외래어는 서구어 전체를 음역하기도 하지만 서구어의 일부는 한자이나 고유어로 번역하여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래어에서 음역 표기된 부분만을 일컬을 때에는 ‘음역부’라 부르기로 한다.

표2-사전별 외래어 목록 수

(단위: 개, %)

사전명	전체 표제어	표제어/표제어 대응 외래어	기술부 포함	음역부 기준 목록	음역부 대응 서구어
언(1890)	11,849	12(0.10)	12	8	8
스(1891)	10,019	2(0.02)	2	2	2
계(1897)	33,346	54(0.16)	58	43	35
호(1902)	2,659	7(0.26)	18	7	7
계(1911)	51,935	353(0.68)	363	156	114
존(1914)	5,086	66(1.30)	95	69	52
언(1925)	13,862	256(1.85)	297	245	211
김(1928)	23,194	211(0.91)	250	207	193
계(1931)	88,056	602(0.68)	616	309	251

주: 사전명은 '편저자명의 한글 두음 첫 글자(간행 연도)'로 표기함.

각 외래어의 ()안 수치는 비율(%)를 나타냄.

래어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까지 이어져, 이 시기에 외래어가 전체 사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전에 따라 이전 시기에 비해 3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각주2'에서 밝힌 것과 같이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 잡지에서 한 면당 사용되는 외래어의 수가 이전보다 3.38배 늘어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사전에서 외래어 등재 비율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사전의 편찬 의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전의 표제명이나 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언더우드(1890)의 영어 표제명은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로서 서문에서 편찬자는 뜻풀이가 완료된 가장 일반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영어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음을 밝혔다.¹²

12 Horace Grant Underwood, 「Preface」, 『韓英字典』(Yokohama: Kelly & Walsh;

또한, 스콧(1891)의 표제명은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이다. 표제명을 통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를 수집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호지(1902)의 표제명 “The Stranger’s Handbook of The Corean Language”을 통해서도 이 책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간단한 어휘집으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언더우드(1890)의 중보판인 언더우드(1925)에서는 “concise”라는 수식어가 삭제되어 이전의 사전에 비해 많은 수의 어휘가 표제어로 수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케 한다. 또한, 서문에서도 당대의 여러 사전을 참고하여 단어를 추가했음을 밝혔다.¹³ 존스(1914)의 경우 서문에서 신학문과 신문문을 번역할 한국어 어휘의 필요가 크게 대두되었음을 언급했는데,¹⁴ 실제로 사전에서 신학문 특히 종교와 관련한 어휘의 경우 외래어로 음역하여 등재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 게일(1911)과 게일(1931)의 서문에서도 신어를 추가하고 사전에 최신 정보를 수록하는 데 공을 들였으며 이를 위해 당대에 간행된 여러 문헌을 참고했음을 밝히기도 했다.¹⁵ 마지막으로, 김동성(1928)에서 표제명에 “最新”, “New”라는 수식어를 덧붙임으로써 당대에 유입되거나

London: Trubner & Co., 1890), 1~2쪽.

13 H. G. Underwood, & H. H. Underwood, 「Preface」, 『英鮮字典』(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5), 3~4쪽.

14 George Heber Jones, 『英韓字典』(Tokyo: Kyo Bun Kwan, 1914), 1~2쪽.

15 게일(1911)의 서문(foreword)에서는 게일(1911)에 새로운 단어를 많이 추가했으며, 책을 최신 정보로 갱신했다고 소개했다. James Scarth Gale, 「Foreword」, 『韓英字典』(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1911), 2쪽, “Many new words have been added and as far as possible the book has been brought up to date.” 한편, 게일의 3판 서언에서는 이노우에의 업적 등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단어들이 게일(1931)에 추가되었음을 밝혔다. James Scarth Gale, 「Preface to the Third Edition」, 『韓英大字典』(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31), 3쪽, “This third edition adds over 35,000 new words taken from Inouye’s great work, from the Government Korean-Japanese Dictionary, and from the publications of today.”

새로이 만들어진 어휘를 표제어의 주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 짐작케 한다.¹⁶

이렇게 1910년 이전에 간행된 사전의 경우, 한국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수집함으로써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돋기 위해 편찬된 것에 반해, 1910년 이후의 사전들에서는 서구의 문물과 사상의 유입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언어 생활의 양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전에 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찬 목적에서 보이는 차이가 서구 문물과 사상이 유입되고 통용되는 속도와 더불어 사전에 서구어를 등재하는 비중과 방식에 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2〉의 두 번째 항목은 표제어나 표제어 대용 외래어 외에 기술부에서 발견되는 외래어까지 모두 계수한 것이다. 언더우드(1890), 스콧(1891)에서는 표제어 대용 외래어 외에 기술부에서 새로이 수집된 외래어가 없지만, 다른 사전들에서는 기술부에서 추가로 수집된 외래어들이 있다.

먼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인 게일이 세 차례에 걸쳐 간행한 게일(1897, 1911, 1931)은 한영 대역사전으로 기술부에서 표제어의 한자음을 제시하고 영어로 그 의미를 기술했다. 이를 사전의 기술부에서 외래어가 등장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게일(1897): 덕국 德國 Germany. See 일이만

ㄴ. 게일(1911): 살단 撒但 Satan See. 마귀; 사탄

ㄷ. 게일(1931): 와스 瓦斯 Gas Also 싸스

게일의 사전에서는 ①과 같이 기술부의 마지막 부분에 ‘See’, ‘Also’ 등

16 정동경, 「한국어 대역사전 비교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간행된 한영사전의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0(2020), 56~57쪽.

으로 시작하는 항목을 넣어 표제어의 유의어나 이형태, 반의어 등을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외래어가 추가로 수집된다. ①-ㄱ의 ‘일이만’은 프랑스어 ‘Allemagne’을 음역한 것이고. ①-ㄴ, ①-ㄷ의 ‘사탄’과 ‘싸스’는 ‘satan’과 ‘gas’를 음역한 것이다. 이렇게 계일의 사전들에서 수집된 표제어 관련 항목 외의 외래어는 계일(1897)에서 4개, 계일(1911)에서 10개, 계일(1931)에서 14개가 있다.

영국인 호지가 1902에 개정 증보하여 발간한 영한사전에서도 기술부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외래어가 발견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② Religion, A Taw 도 or Kyo 교. … Yea-soo-kyo 예수교(Protestant)

②와 같이 호지(1902)의 기술부에서만 발견되는 외래어는 11개가 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존스가 1914년에 간행한 영한사전의 경우, 기술부에 제공된 ‘예’에서 외래어가 발견된다. 그 외에, 표제어를 한글로 음역하고 괄호 안에 한자 음역어를 추가로 밝힌 예가 있다.

③ ㄱ. Doctrine, 교리: 도리: 주의. The Monroe — 먼으로주의(먼으로主義).

ㄴ. Druid 쓰르잇(德雷的教)

③-ㄱ의 밑줄 친 부분은 기술부의 예에서 발견되는 외래어에 속하고, ③-ㄴ의 밑줄 친 부분은 한글로 음역된 외래어 ‘쓰르잇’ 옆에 한자로 음역한 외래어를 밝혀 놓은 것이다. 전자와 같은 예는 16개, 후자의 경우 13개가 추가로 수집되었다.

언더우드(1925)는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H. H. Underwood)가 자신의 아버지인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간행한 영한사전인 언더우드(1890)

의 영한부를 증보하여 1925년에 출판한 사전이다. 이 역시 ④의 밑줄 친 부분처럼 사전의 기술부에서 새로이 수집된 외래어가 있다.

④ Tweed 일종의 모직물, 유포(스카틀랜드 남방 트위드 강근처에 셰제조하는 것)

이와 같은 경로로 언더우드(1925)의 기술부에서 수집된 외래어는 총 41개이다. 표제어와 대응하는 외래어의 경우 대부분 대괄호나 소괄호 안에 들어 있어서 일종의 발음 부호 역할을 한다. 한편, 표제어에 대응하지 않는 외래어가 기술부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괄호로 묶어 놓은 예가 거의 없다.

김동성(1928)은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한영사전이다. 이 사전의 기술부에서도 예를 제공하는데, 외래어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⑤ 그. 고가삭 The Caucasus 예. 고가삭인종 The Caucasian race

ㄴ. 스파이(탐정) A spy 예. 불란서 적십자 병원 의사 한 사람이 독일 스파이로 잡히고 본즉 가이제루의 세스재 아들이었으며 셔반아에 총본부를 두고 련락을 취하였었다.

⑤-그은 표제어를 구성 성분으로 하는 복합어나 구를 예로 든 것이다. 한편, ⑤-ㄴ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이나 문장에 해당하는 긴 예를 들면서 표제어와 관련 없는 외래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⑤에서와 같이 예문에서 발견되는 외래어 목록 중 표제어와 중복되지 않는 외래어는 총 39개가 있다.

〈표2〉의 세 번째 항목은 이미 수집된 외래어 목록에서 같은 형태의 음역부가 여러 단어에서 거듭 출현하는 경우 이를 하나로 계수하여 서로 다른 음역부의 수만을 밝힌 것이다. 그 예를 사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⑥ ㄱ. 언90: 그리스도교국, 그리스도교우, 그리스도교 ⇒ 그리스도
- ㄴ. 계97, 11, 31: 영국, 영국말, 영문, 영어… ⇒ 영(국)
 - ㄴ'. 계11, 31: 류화암모니엄, 린산암모니엄, 슈산암모니엄, … ⇒ 암모니엄
 - ㄷ. 하지02: 미국, 미국공스, 미국공스관 ⇒ 미(국)
 - ㄹ. 존14: 로득교, 로득교도 ⇒ 로득
 - ㅁ. 언25: 이태리의, 이태리사룸의, 이태리데활즈의… ⇒ 이태리
 - ㅂ. 김28: 셔반아, 셔반아어, 셔반아인… ⇒ 셔반아

⑥에서처럼, 음역부를 어근으로 하여 파생이나 합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 경우는 지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견된다. 한편, 중복 출현 음역부는 계일(1911, 1931)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는 ⑥-ㄴ'과 같이 화학명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금속 원소를 음역한 예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일(1911)과 계일(1931)에서 중복되는 음역부를 하나로 계수하면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표2〉의 마지막 항목은 각 음역부에 대응하는 서구어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수집된 외래어 목록에서 음역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서구어 목록을 사전별로 정리할 때, 하나의 서구어에 한글 음역 표기와 한자 음역 표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와 동일한 영어 표제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표기가 나타나는 경우 모두를 서구어가 중복 출현한 것으로 보아 각각 하나로 계수했다.

먼저, 전자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⑦ ㄱ. 계97: 耶蘇/예수 ⇒ Jesus
- ㄴ. 계11: 基督/그리스도 ⇒ Christ, 瓦斯/갓스 ⇒ gas
 - ㄷ. 존14: 羅馬/로마 ⇒ Rome, 美以美/맥도너스 ⇒ Methodist

- ㄹ. 언25: 曹達/소다 ⇒ soda, 哥加乙/코케인 ⇒ cocaine
- ㅁ. 김28: 羅甸/래 ⇒ Latin, 모루히네/몰핀 ⇒ Morphine
- ㅂ. 계31: 耶華和/여호와 ⇒ Jehovah, 耶路撒冷/예루살렘 ⇒ Jerusalem

⑦과 같이 동일한 서구어를 표기 방식을 달리하여, 한글로 음역하거나 한자로 음역한 어휘가 한 사전에서 모두 나타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예는 한글로 음역된 외래어가 많이 등장하는 1910년 이후에 간행된 사전에서 주로 발견된다.

다음은 서구어를 한글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한 사전에서 이표기가 나타나는 예이다.

- ⑧ ㄱ. 계일(1911): 소다/쏘다 ⇒ soda, 포타시엄/포타시염/포타시암 ⇒ potassium
- ㄴ. 언더우드(1925): 글너서린/글니셔린 ⇒ glycerine, 넥타이/넥다이 ⇒ necktie
- ㄷ. 계일(1931): 도람/쓰람 ⇒ dram, 썬스/션스/션쓰 ⇒ gas, 랍푸/란푸 ⇒ lamp

이러한 예는 언더우드(1925)와 계일(1911, 1931)에서만 발견된다. 특히 ⑧-ㄷ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일본어의 간접으로 인한 이표기와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되는 서구어의 자음과 평음, 격음, 경음으로 대립되는 한국어의 자음 사이에서 이표기가 많다.

III. 외래어의 표기 방식

각 한영·영한 대역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구어가 한국어의 음운, 음절 구조에 맞게 직접 음역된 경우 외에도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어의 음절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표기도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이 글에서 수집된 외래어의 음역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기 방식에 따라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의 예를 사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⑨ ㄱ. 언90/스91: 영한부 - 미국, 한영부 - 아편연(鴉片煙)
 - ㄴ. 스91: 아편연
- ㄷ. 계97/11/31: 감나대(坎拿大), 구라파(歐羅巴), 기독(基督), 다력만(多力曼)
- ㄹ. 하02: 덕국, 몰약, 미국, 아편
- ㅁ. 존14: 구락부(俱樂部), 기독(基督); 바알(巴力), 아멘(亞門), 아빠(啞吧)
- ㅂ. 언25: 기독(基督), 삼편쥬(三鞭酒), 아모니아(亞母尼亞), 지나(支那)
- ㅅ. 김28: 고가삭(高加索), 구락부(俱樂部), 낙위(諾威); 가다루증(加答兒)

⑨- ㄱ에서처럼 언더우드(1890)의 영한부에서는 한자로 음역한 외래어에서도 한자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반해, 한영부에서는 ‘鴉片煙’과 같이 한글 표기 옆에 한자 표기도 밝혀 놓았다. 스콧(1891), 호지(1902)에서는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에서도 한자 표기를 밝히지 않았다. 게일(1897, 1911, 1931)이나 언더우드(1925)에서는 ⑨- ㄷ, ⑨- ㅂ과 같이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의 경우 한자를 병기했다. 존스(1914)에서는 표제어에 대응하는 외래어가 한자 음역어인 경우 한자 표기를 괄호 안에 밝혔다. 한편, 표제어에 한글 음

역어를 대응한 경우에도 한자 음역어가 존재하면 ‘아빠(哑吧)’과 같이 괄호 안에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를 명시했다. 김동성(1928)에서도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가 표제어인 경우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를 모두 밝혔으며, 한글로 음역된 외래어 표제어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한자 음역어가 존재하면 한자 표기도 함께 보였다.

이어서 한글로 음역된 외래어의 예를 사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⑩ ㄱ. 언90: 그리스도(Christ); 쑥국(cuckoo)
- ㄴ. 스91: 쑥국(cuckoo)
- ㄷ. 계97: 예수(Jesus)
- ㄹ. 계11: 고피(Coffee), 클노로폼(Chloroform); 콰야콜/콰야콜(Guaiacol)
- ㅁ. 존14: 갈버리(Calvary), 싸끼(khaki); 글너서린(glycerin), 코다온(go-down)
- ㅂ. 언25: 가랏(Carat), 카피(coffee); 그림(gram), 갤논(gallon)
- ㅅ. 김28: 폴레라(cholera), 칼라(collar); 글리스린(glycerine), 싸십(gossip)
- ㅇ. 계31: 킹가루(kangaroo), 캄마(Comma); 스레인(grain), 쇠쓰(Gas)

⑩에서는 한글 음역어 중에서 유성음 [g]와 무성음 [k]가 들어 있는 서구어를 한글로 음역한 외래어를 예로 보였다. 언더우드(1890)에서는 무성음 [k]를 평음 ‘ㄱ’과 경음 ‘ㅋ’으로 나타냈다. 계일(1897)에서는 서구어가 한글로만 표기된 예는 단 두 예만이 나타나며 모두 영어가 아닌 서구어(헬라어)를 음역한 것이다. 존스(1914)에서는 서구어의 [k]와 [g]를 구별하지 않고 ‘ㄱ’이나 ‘ㅋ’으로 음역했으며, 격음 ‘ㅋ’으로 음역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언더우드(1925)와 김동성(1928)에서 무성음 [k]는 ‘ㄱ’이나 ‘ㅋ’으로, 유성음

[g]는 ‘ㄱ’이나 ‘ㅋ’으로 음역했다. 계일(1911, 1931)에서는 무성음 [k]는 평음 ‘ㄱ’이나 격음 ‘ㅋ’으로, 유성음 [g]는 경음 ‘ㅋ’으로 음역했다. 한편, 무성음 [k]의 경우, 계일(1931)에서 새로이 등재된 외래어의 경우 격음 ‘ㅋ’으로 음역한 예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¹⁷

마지막으로 한글로 음역되어 있으나 일본어의 음절 구조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있다.

⑪ ㄱ. 호02: 곡(cook)

ㄴ. 계97: 유로파(Europa)

ㄷ. 계11: 곡(Cook), 램프(lamp), 콤푸(pump)

ㄹ. 언25: 곱쑤(cup), 라무네(lemonade), 베못도(vermouth)

ㅁ. 계28: 가이제루(Kaiser), 라무네(lemonade), 모루히네(morphine)

ㅂ. 계31: 싸롱(gallon), 데시릿도루(decilitre), 텐쏘(tent)

일본어의 음절 구조로 음역된 외래어는 주로 1920년대 이후의 사전에서 발견되는 데 반해, ‘cook’을 음역한 ‘곡’에 일본어에서 존칭을 뜻하는 접미사 ‘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곡샹(cook)’은 꽤 이른 시기의 사전에서부터 발견된다.

이상의 기준으로 Ⅱ장에서 수집된 외래어에서 음역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한자로 음역된 것과 한글로 음역된 것,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본의 음절

17 한편, 마찰음의 경우 ‘식사부라쓰(Sassafras)’나 ‘뮤쓰(muse)’와 같이 모든 사전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 없이 모두 평음 ‘ㅅ’이나 격음 ‘ㅆ’으로만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1908년에 간행된 池錫永의 『兒學編』에서 현대국어와 달리 [z] 이 파찰음으로 음역되지 않은 것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이준환, 「池錫永『兒學編』영어 어휘의 한글 표기와 국어의 음운론적 대응 양상: 자음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사연구』 18(2014), 267~268쪽.

표3-표기 방식에 따른 외래어 수 및 비중

(단위: 개, %)

사전명		언(1890)	스(1891)	계(1897)	호(1902)	계(1911)	존(1914)	언(1925)	김(1928)	계(1931)
유형	한자	2 (25.0)	1 (50.0)	40 (93.0)	6 (85.7)	81 (51.9)	32 (46.4)	52 (21.3)	39 (18.8)	96 (30.7)
	한 韓	6 (75.0)	1 (50.0)	1 (2.4)	0 ()	72 (46.2)	37 (53.6)	182 (74.2)	164 (79.2)	171 (55.7)
	글 日	-	-	2 (4.7)	1 (4.3)	3 (1.9)	-	11 (4.5)	4 (1.9)	42 (13.6)
합		8	2	43	7	156	69	245	207	309

주: 사전명은 '편저자명의 한글 두음 첫 글자(간행 연도)'로 표기함.

각 외래어의 ()안 수치는 비율(%)를 나타냄.

구조를 따른 외래어가 각 사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1900년을 전후로 간행된 사전에서는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하지만 1910년 이후에 간행된 사전에서 한글로 음역된 외래어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0년 이후에 간행된 사전에서는 한글로 음역된 외래어의 비중이 전체 외래어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어의 음절 구조를 따른 한글 표기 외래어의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후기에 외래어로 유입되는 서구어 일수록 한글로 직접 음역하는 표기 방식을 선호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일본어의 간접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외래어의 조어 방식

이 장에서는 한영·영한 대역사전에 등장하는 외래어가 조어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수집된 외래어 목록을 바탕으로 하면, 그 형성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서구어 전체가 음역되어 외래어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예이다(유형 1). 둘째, 서구어 전체가 음역되고 그에 한자어나 고유어 형태소를 덧붙인 경우이다(유형 2). 셋째, 서구어의 구성 성분 일부는 외래어로 음역되고, 나머지는 한자어나 고유어로 번역된 경우이다(유형 3). 넷째, 이미 형성된 외래어의 축약형에 한자어/고유어 형태소가 덧붙어 복합어가 되는 경우이다(유형 4). 다섯째, 서구어의 구성 성분 일부는 외래어 축약형으로 나머지는 한자이나 고유어로 번역된 경우이다(유형 5).

먼저, 유형 1에 해당하는 외래어의 예를 사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② ㄱ. 언90: 그리스도(Christ), 야드(yard)
 - ㄴ. 계97: 갑나대(Canada), 구라파(Europe), 기독(Christ), 다력만(Dynamite)
 - ㄷ. 호02: 아편(opium)
- ㄹ. 계11: 가나타(Canada), 가피(coffee), 크로뮴(Chrome), 고가식(Caucasia)
- ㅁ. 존14: 아멘(amen), 아빠(abba), 바알(baal), 할네루야(alleluia)
- ㅂ. 언25: 알루미늄(aluminum), 알콜(alcohol), 알팔파(alfalfa), 에커(acre)
- ㅁ. 김28: 고가삭(Caucasus), 고무(gum), 까십(gossip), 고스(gauze)
- ㅂ. 계31: 가나타(Canada), 카이제루(Kaiser) 싸롱(gallon), 싸소린(Gasoline)

②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외래어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직

접 음역한 것과 중국어나 일본어로 음역된 후 한국에 유입된 간접 음역어가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한국어에서 단일어로 분석되며 이에 대응하는 서구어 역시 단일어이다. 이렇게 단일어인 서구어가 단일어로 음역되어 만들어진 외래어가 전체 목록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둘째, 유형 2에 해당하는 외래어를 사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⑬ ㄱ. 언90, 스91: 쪽국이(cuckoo), 아편연(opium)
ㄴ. 계97: 고피차(coffee), 셔반아국(Spain), 아편연(opium)
ㄷ. 호02: 곡상(cook), 몰약(myrrh)
ㄹ. 계11: 고피차(coffee), 기나丘(cinchona), 노위국(Norway), 아세아대륙(Asia)
ㅁ. 존14: 라틴어(Latin), 몰약(myrrh), 바리새인(Pharisee), 아편연(opium)
ㅂ. 언25: 가피차(coffee), 드루이드교(Druid), 아가시야나무(acacia)
ㅅ. 김28: 가다루증(gatarrh), 고가삭병(Cossacks), 백이의국(Belgium)
ㅇ. 계31: 고란경(Koran), 쏘기차(buggy), 히스테리신경병(Hysteria)

⑭에서와 같이 유형 2는 단일어로 된 서구어를 한국어로 받아들일 때 서구어 전체를 음역한 외래어에 한자어나 고유어 형태소 또는 단어를 결합하여 복합어나 구의 형태로 만들어 혼종어에 해당한다. 이때 덧붙여진 성분은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론적으로 선행하는 음역부의 상위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유형 3에 해당하는 외래어를 사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⑮ ㄱ. 언90: 그리스도교국(Christendom), 그리스도교우(Christian)
ㄴ. 계97: 곡상(Mr. the Cook), 북아미리가(North America)

- ㄷ. 계11: 격로모산(Chromic acid), 과류화안티모니엄(Antimonii Persulphitum)
- ㄹ. 존14: 그리스도(Anti-Christ), 맥도너스교회(Methodist church)
- ㅁ. 언25: 류산아모니아(Ammonium-sulphate), 마라松 경주(Marathon-race)
- ㅂ. 김28: 몬로주의(Monroe doctrine), 바나마모자(panama hat)
- ㅅ. 계31: 가피나무(Coffee tree), 가피당(Coffee suger)

유형 3은 ⑭과 같이 복합어 또는 구에 해당하는 서구어의 일부는 음역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복합어나 복합어에 가까운 구로 받아들인 예이다. 이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음역되는 부분은 주로 지명이나 인명, 물명과 같은 고유명사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성분은 한국어 형태소나 단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4와 유형 5는 유형 2 와 유형 3의 음역부가 축약형으로 나타나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⑮ ㄱ. 유형 4: 미국(America); 포도국(Portugal), 불란국(France)
- ㄴ. 유형 5: 불란거(A French wagon), 영조신문(English newspaper)

유형 4와 유형 5는 단일어인 서구어와 구 단위의 서구어를 각각 복합어나 구 단위의 외래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명을 가리키는 외래어의 음역부를 축약한 후 한국어 형태소나 단어를 결합하여 나머지 의미를 보충했다. 이러한 축약형은 ⑮-ㄱ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에 한국어 특히 한자어 형태소를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거나, ‘포도-(<포도아>)’, ‘불란-(<불란서>)’와 같이 외래어의 일부 음절에 한국어 형

표4-외래어의 조어 방식에 따른 분류

(단위: 개, %)

사전명	언(1890)	스(1891)	계(1897)	호(1902)	계(1911)	존(1914)	언(1925)	김(1928)	계(1931)
유형	1 3 (25.0)	-	24 (41.4)	1 (5.6)	66 (18.2)	37 (38.9)	200 (67.3)	191 (76.4)	209 (33.9)
	2 (8.3)	2 (100.0)	9 (15.5)	2 (11.1)	27 (7.4)	18 (18.9)	24 (8.1)	5 (2)	25 (4.1)
	3 (50.0)	-	8 (13.8)	-	230 (63.4)	31 (32.6)	57 (19.2)	42 (16.8)	330 (53.6)
	4 (16.7)	-	8 (13.8)	3 (16.7)	24 (6.6)	5 (5.3)	12 (4.0)	8 (3.2)	25 (4.1)
	5 -	-	9 (15.5)	12 (66.7)	16 (4.4)	4 (4.2)	4 (1.3)	4 (1.6)	27 (4.4)
합	12	2	58	18	363	95	297	250	616

주: 사전명은 '편저자명의 한글 두음 첫 글자(간행 연도)'로 표기함.

각 외래어의 ()안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조어 방식에 따라 전체 외래어 목록을 유형별로 계수하면 <표4>와 같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 이후에 간행된 사전에서 유형 1에 속하는 외래어가 전체 외래어 목록의 2/3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하나의 서구어가 유 1과 유형 2의 방식으로 각각 만들어져 한 사전에 모두 등재된 예가 다수 발견되는데, 유형 2는 서구어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음역된 외래어에 다시 한국어 형태소를 덧붙임으로 낯선 서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일부라도 명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유형 2에 속하는 외래어 목록은 각 사전에서 꾸준히 나타나지만, 서구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기에 이르면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유형 3에 속하는 외래어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유형 1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세기에 간행된 계일의 두 사전에서는 유형 3에 해당하는 외래어 목록이 가

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화학명이 많이 등재되었기 때문이다(⑭-ㄷ). 유형 2, 유형 4, 유형 5에 해당하는 외래어의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각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유형 1과 유형 3에 해당하는 외래어의 수와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새로이 유입되는 외국어일 수록 국내에 음역되어 정착하게 될 경우 단일어의 경우 유형 1을, 복합어 내지 구의 경우 유형 3과 같은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V. 외래어의 의미 범주

이 장에서는 이 글에서 수집된 외래어에 대응하는 서구어를 기준으로 하여 의미 범주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서구어가 외래어로 음역되었으며, 사전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외래어를 구체어와 개념어로 나누었으며,¹⁸ 각각을 전문어와 일반어로 하위 분류했다. 또한 각각을 다시 인문사회 계열어와 이공 계열어, 예체능 계열어로 나누었다.

18 보통 감각으로 인식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구체어에 대비되는 용어로 추상어를 언급한다. 한편, 개념어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가리키는 말”이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추상어보다 개념어는 상위 층위의 용어로 상황에 따라 추상어뿐만 아니라 구체어도 개념어가 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시기의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가 초기에 간행된 사전에 비해 후기에 간행된 사전에서 개개의 구체어에서 그 구체어를 통해 생겨난 개념을 가리키는 말로 등재되는 어휘가 확장되어 갔다고 보았다. 따라서 오감으로 파악 가능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개개의 것을 가리키는 말은 구체어로, 추상어를 포함하여 개개의 구체어를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으로 묶은 말을 개념어로 보아 구체어와 개념어로 분류했다.

먼저, 구체어에 해당하는 어휘들의 분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⁹

- ⑯ ㄱ-1. 전문(인/사): 모세(Moses), 바리새인(pharisee), 에봇(ephod)
- ㄱ-2. 전문(이/공): 아미바(amoeba), 알유민이엄(aluminum), 칼시엄(calcium)
- ㄱ-3. 전문(예/체): 코넷(cornet)
- ㄴ-1. 일반(인/사): 곱չ(cup), 커리(curry), 후록고투(frock coat)
- ㄴ-2. 일반(이/공): 더기(turkey), 아가시야(acacia), 유가리수(eucalyptus)
- ㄴ-3. 일반(예/체): 구레용(crayon), 스키(ski), 피아노(piano)

⑯-ㄱ에서 인문 사회 계열에 해당하는 어휘의 대다수는 기독교 관련 어휘이고, 이공 계열에 속하는 어휘의 대다수는 금속 원소 이름과 같은 화학 관련 전문어에 해당한다. 한편, 구체어 중 일반어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에는 주로 의식주와 관련한 물명과 지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공 계열어에는 식물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어휘들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계열 어휘에는 운동 종목이나 악기, 도구가 속해 있다.

이어서 개념어에 해당하는 외래어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⑰ ㄱ-1. 전문(인/사): 아리스토크래씨(aristocracy), 할네루아(alleluia)
- ㄱ-2. 전문(이/공): 구롱(coulomb), 싸원(Darwinism), 아루까리(alkali)
- ㄱ-3. 전문(예/체): 뮤쓰(muse), 에칭(etching), 컷(cut)
- ㄴ-1. 일반(인/사): 아마튜어(amature), 인스프레숀(inspiration), 컬튜어(culture)

19 여기에서 언급되는 외래어의 표기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전에서 사용된 것을 선택했다.

↳-2. 일반(이/공): 갤런(gallon), 센티미터(centimeter), 에커(acre)

↳-3. 일반(예/체): 리그(league), 팀(team)

개념어 중 인문사회 계열어에 속하는 전문어로는 기독교 관련 용어 외에도 정치·사회 제도나 구조, 이념과 관련된 용어가 있다. 또한 이공 계열어에 속하는 서구어에서는 전문 영역이나 일반 생활 영역에서 수나 양의 단위를

표5-서구어의 의미 범주에 따른 분류

(단위: 개, %)

구분	구체어						개념어						합	
	전문어			일반어			전문어			일반어				
	인/사	이/공	예/체	인/사	이/공	예/체	인/사	이/공	예/체	인/사	이/공	예/체		
전체 수	25 (5.2)	87 (18.0)	1 (0.2)	140 (29.0)	39 (8.1)	18 (3.7)	65 (13.4)	31 (6.4)	12 (2.5)	40 (8.3)	22 (4.5)	4 (0.8)	484	
언(1890)	2 (25.0)	2 (25.0)	-	2 (25)	1 (12.5)	-	-	-	-	-	1 (12.5)	-	8	
스(1891)	-	1 (50.0)	-	-	1 (50)	-	-	-	-	-	-	-	2	
계(1897)	4 (11.4)	-	-	31 (88.6)	-	-	-	-	-	-	-	-	35	
호(1902)	-	2 (28.6)	-	5 (71.4)	-	-	-	-	-	-	-	-	7	
계(1911)	5 (4.4)	47 (41.2)	-	45 (39.5)	2 (1.8)	-	4 (3.5)	10 (8.8)	-	1 (0.9)	-	-	114	
존(1914)	13 (25.0)	3 (5.8)	-	10 (19.2)	-	-	21 (40.4)	-	-	5 (9.6)	-	-	52	
언(1925)	9 (4.3)	33 (15.6)	1 (0.5)	76 (36.0)	25 (11.8)	9 (4.3)	14 (6.6)	15 (7.1)	3 (1.4)	11 (5.2)	12 (5.7)	3 (1.4)	211	
김(1928)	4 (2.1)	27 (14.0)	-	62 (32.1)	11 (5.7)	7 (3.6)	28 (14.5)	8 (4.1)	9 (4.7)	27 (14.0)	9 (4.7)	1 (0.5)	193	
계(1931)	9 (3.6)	63 (25.1)	-	70 (27.9)	14 (5.6)	8 (3.2)	26 (10.4)	15 (6.0)	5 (2.0)	21 (8.4)	18 (7.2)	2 (0.8)	251	

주: 사진명은 '편저자명의 한글 두음 첫 글자(간행 연도)'로 표기함.

각 외래어의 ()안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어휘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전에서 수집된 외래어를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표5>와 같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의 사전들에서 수집된 외래어의 대부분이 구체어, 특히 그중에서도 지명과 같은 일반어에 속했다. 1910년대 사전들에서는 구체어 중에서도 전문어에 속하는 외래어의 수가 증가했으며, 개념어에 속하는 외래어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계일(1911)의 경우 전체 목록에서 구체어인 전문어 중에서도 화학명이 70%, 개념어인 수량 단위어가 15%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존스(1914)에서는 구체어와 개념어를 막론하고, 전문어 중 기독교 관련 어휘가 80%에 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구체어 중 일반어의 경우 1910년대의 사전까지만 해도 80% 넘는 수가 지명에 해당했다. 하지만 1920년대의 사전들에서는 그 양상이 달라진다. 언더우드(1925)에서는 구체어에 속하는 일반어 중 60%에 달하는 외래어가 의복이나 음식과 관련한 어휘에 속하며, 김동성(1928)에서는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물의 명칭 관련 어휘가 2/3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1920년대 이후의 사전에서는 개념어에 해당하는 외래어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실제로 수집된 외래어 중 개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언더우드(1925)는 28%, 김동성(1928)은 41%, 계일(1931)에서는 33%로 이전에 비해 외래어로 음역된 개념어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VI. 외래어의 출현 횟수

이 장에서는 이 글에서 수집된 외래어에 대응하는 서구어가 9종의 한영·영한 대역사전에서 등재된 횟수를 계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5종 이상의 사전에서 외래어로 음역된 서구어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⑯ ㄱ, 9회(1): opium

ㄴ. 7회(5): England, Germany(언90/스91 제외); Jesus, Judea(스91/하02 제외); America(스91/존14 제외)

ㄷ, 6회(6): Europe, Rome, Turkey(언90/스91/호02 제외); cook, France(언90/스91/존14 제외); Christ(스91, 호02, 김28 제외)

ㄹ. 5회(9): Asia, Coffee, Italy, Russia, Spain(개97, 11, 31/언25/김28); Jehovah(개97, 11, 31/존14/언25); Myrrh(개11, 31/호02/존14/언25); gas, Latin(개11, 31/존14/언25/김28)

모든 사전에서 외래어로 음역된 서구어는 ‘opium’으로 ‘아편연’ 또는 ‘아편’으로 음역되었다. ⑯-ㄴ과 같이 7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단어는 지명에 해당하는 ‘England’, ‘Germany’, ‘America’와 기독교 관련 어휘인 ‘Jesus’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 음역되었으며, ‘Jesus’, ‘Judea’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한자 음역어와 한글 음역어가 함께 등장한다. 또한, 5종 이상의 사전에서 출현한 서구어의 대부분이 지명에 해당하고, 다음으로는 기독교 관련 용어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한편, ‘cook(곡)’, ‘gas(와스/싸스)’가 각각 6종과 5종의 사전에서 등재되었다.

3종과 4종의 사전에서 외래어로 음역된 서구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⑰ ㄱ. 4회(14): Australia 외 지명 2, dynamite(개97, 11, 31/언25); Persia(개97, 11, 31/김28); Africa(개97, 11/언25/김28); Arabia 외 지명 2, ammonia 외 화학명 2, mile(개11, 31/언25/김28); club(존14/언25/김28/개31)

ㄴ. 3회(49): yard(언90, 25/개31); cuckoo(언90, 25/스91); Allemangne(개97, 11/언25); Austria 외 지명 6(개97, 11, 31); Siberia(개11, 31/존14);

Belgium 외 지명 3, chromium 외 화학명 2 등 구체어 9, inch 등 개념어 3(개11, 31/김28); ammonium 외 화학명 2 등 구체어 7, dram 등 개념어 2(개11, 31/언25); butter 등 의식 관련어 10개 포함 구체어 12, ounce 등 개념어 3(언25/김28/개31); monroe, mormon(존14/김28/개31)

⑯-ㄱ에서처럼 4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서구어의 경우, 여전히 지명이 과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5종 이상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어휘와 다르게 3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서구어에서는 1920년 이후에 간행된 사전이 포함된 경우, 물명, 단위어, 개념어 등 다양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외래어로 음역되었다.

2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서구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⑰ ㄱ. American(개97/개11); New York(개97/언25)

- ㄴ-1. ammoniac 외 화학명 26개, Denmark 외 지명 5개 등 구체어 36, avoirdupois 외 단위어 4 등 개념어 7개(개11, 31),
- ㄴ-2. Messiah 외 종교 3, dollar, spell(존14/언25); Methodism 외 종교 2(존14/개31),
 - ㄷ-1. acacia 등 구체어 9, gallon 등 개념어 6(언25/개31); biscuit 등 구체어 10, carat 등 개념어 7(언25/김28)
 - ㄷ-2. common sense 외 개념어 31, stove 외 구체어 20(김28/개31)

2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서구어의 수는 총 142개이다. 이 중 개일(1897)에도 출현하는 외래어는 모두 지명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한편, ⑰-ㄴ처럼 1910년대에 간행된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개일(1911)에서는 화학명이, 존스(1914)에서는 종교 관련 어휘가 많다. 또한, ⑰-ㄷ처럼 1920년대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에 등재된 외래어는 언더우드(1925)에 등재된 외래어의 경우 구체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김동성(1928)과 계일(1931)에만 실린 외래어의 경우 여타 사전들과 다르게 개념어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각 사전에서 1회만 외래어로 출현하는 서구어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② ㄱ. 언90(1): turkey, 계97(1): oriole, 계11(6): chromic 외 화학명 3, Paris
ㄴ. 존14(25): abba 등 종교 22, go-down 등 물명어 3
ㄷ. 언25(112): brandy 등 음식 관련어(24) 포함 구체어(일) 61, ether 등
구체어(전) 20, ell 등 개념어(전) 23, acre 등 개념어(일) 8
ㄹ. 김28(64): beefsteak 등 음식 관련어(14) 포함 구체어(일) 24, radium
등 구체어(전) 4, proletarian 등 개념어(전) 25, gossip 등 개념어(일) 11
ㅁ. 계31(53): white shirts 등 구체어(일) 20, sal ammoniac 등 구체어(전)
7, coulomb 등 개념어(전) 21, why 등 개념어(일) 5

‘칠면조’를 가리키는 ‘turkey’와 ‘(복미산) 찌르레기’를 가리키는 ‘oriole’(아리새)은 언더우드(1890)과 계일(1997)에서만 각각 발견된다. 계일(1911)에는 ‘chromic’(크로믹)과 같은 금속 원소명과 지명인 ‘Paris’의 한자 음역어인 ‘파려서’가 등재되어 있다. 존스(1914)에만 등재된 어휘의 경우는 이전의 예에서 보였던 양상과 일관되게 기독교와 관련된 서구어가 음역된 예가 대부분이다. 언더우드(1925)에서만 출현하는 서구어는 112개이다. 이중 구체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어 중 1/3이 넘는 수가 익명주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언더우드(1925)와는 다르게, 김동성(1928)에서만 등재된 서구어 중에서는 개념어

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전문어에 해당하는 어휘가 70%에 달 한다. 한편, 구체어 중에서는 언더우드(1925)와 마찬가지로 의식주 관련 어휘가 과반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계일(1931)에서만 음역된 서구어는 김동성(1928)과 같이 개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에 가까운데, 김동성(1928)에서는 개념어의 대부분이 인문사회 계열 어휘였다면 계일(1931)에서는 각 분야의 어휘가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각 사전에서 사전의 출현 횟수에 따른 서구어 목록의 수와 비율을 표로 보이면 <표6>과 같다.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의 사전에 외래어로 등재된 서구어는 다른 사전에서도 외래어로 등재되어 각

표6-서구어의 사전별 종복 출현 횟수 (단위: 개, %)

횟수	언(1890)	스(1891)	계(1897)	호(1902)	계(1911)	존(1914)	언(1925)	김(1928)	계(1931)
9회	1 (12.5)	1 (50.0)	1 (2.9)	1 (14.3)	1 (0.9)	1 (1.9)	1 (0.5)	1 (0.5)	1 (0.4)
8회	1 (12.5)	-	1 (2.9)	1 (14.3)	1 (0.9)	1 (1.9)	1 (0.5)	1 (0.5)	1 (0.4)
7회	1 (12.5)	-	3 (8.6)	2 (28.6)	3 (2.6)	3 (5.8)	3 (1.4)	3 (1.6)	3 (1.2)
6회	2 (25.0)	-	7 (20)	2 (28.6)	7 (6.1)	5 (9.6)	6 (2.8)	6 (3.1)	7 (2.8)
5회	-	-	6 (17.1)	1 (14.3)	9 (7.9)	4 (7.7)	9 (4.3)	7 (3.6)	9 (3.6)
4회	-	-	6 (17.1)	-	13 (11.4)	1 (1.9)	13 (6.2)	10 (5.2)	13 (5.2)
3회	2 (25.0)	1 (50.0)	8 (22.9)	-	30 (26.3)	3 (5.8)	27 (12.8)	29 (15.0)	47 (18.7)
2회	-	-	2 (5.7)	-	44 (38.6)	9 (17.3)	42 (19.9)	72 (37.3)	117 (46.6)
1회	1 (12.5)	-	1 (2.9)	-	6 (5.3)	25 (48.1)	109 (51.7)	64 (33.1)	53 (21.1)
합	8	2	35	7	114	52	211	193	251

주: 사전명은 '편저자명의 한글 두음 첫 글자(간행 연도)'로 표기함.

각 외래어의 ()안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사전에 1회씩만 등재된 목록의 수가 많지 않다. 반면에 존스(1914)에서 외래어로 음역된 서구어 목록의 48%가 다른 사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존스(1914)에서 기독교와 관련한 특정 서구어가 외래어로 등재된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또한 언더우드(1925)에서도 외래어로 음역된 서구어 목록의 약 52%가 다른 사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언더우드(1925)에서 외래어로 음역된 서구어 중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김동성(1928)과 계일(1931)에도 실린 목록의 수를 살펴보면, 각각 59개, 72개로 전체 목록의 28%, 34%밖에 되지 않는다(표7 참조). 이는 언더우드(1925)에 실린 서구어 목록에서는 구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 김동성

표7-사전 간 외래어의 상호 등재 목록 수
(단위: 개, %)

구분	언(1890)	스(1891)	계(1897)	호(1902)	계(1911)	존(1914)	언(1925)	김(1928)	계(1931)
언 1890	1 (12.5)	2 (100.0)	5 (14.3)	4 (57.1)	5 (4.4)	5 (9.6)	5 (2.4)	4 (2.1)	5 (2.0)
스 (1891)	2 (25.0)	-	1 (2.9)	1 (14.3)	1 (0.9)	1 (1.9)	2 (0.9)	1 (0.5)	1 (0.4)
계 (1897)	5 (62.5)	1 (50.0)	1 (2.9)	6 (85.7)	34 (29.8)	11 (21.2)	23 (10.9)	18 (9.3)	32 (12.7)
호 (1902)	4 (50.0)	1 (50.0)	6 (17.1)	-	7 (6.1)	5 (9.6)	7 (3.3)	6 (3.1)	7 (2.8)
계 (1911)	5 (62.5)	1 (50.0)	34 (97.1)	7 (100.0)	6 (5.3)	15 (28.8)	42 (19.9)	39 (20.2)	104 (41.4)
존 (1914)	5 (62.5)	1 (50.0)	11 (31.4)	5 (71.4)	15 (13.2)	25 (48.1)	20 (9.5)	14 (6.6)	21 (8.4)
언 (1925)	5 (62.5)	2 (100.0)	23 (65.7)	7 (100.0)	42 (36.8)	20 (38.5)	109 (51.7)	59 (28.0)	72 (28.7)
김 (1928)	4 (50.0)	1 (50.0)	18 (51.4)	6 (85.7)	39 (34.2)	14 (26.9)	59 (28.0)	64 (30.3)	110 (43.8)
계 (1931)	5 (62.5)	1 (100.0)	32 (91.4)	7 (100.0)	104 (91.2)	21 (40.4)	72 (34.1)	110 (52.1)	53 (21.1)
총목록수	8	2	35	7	114	52	211	193	251

주: 사전명은 '편저자명의 한글 두음 첫 글자(간행 연도)'로 표기함.

각 외래어의 ()안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1928)과 게일(1931)에서는 개념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별로 다른 사전과 상호 등재된 서구어 목록의 수와 그 비율을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에서 각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면, 언더우드(1890), 스콧(1891), 호지(1902)의 경우에는 다른 사전에 등재된 목록 수가 사전별로 대체로 비슷하다. 한편, 게일(1897)의 외래어는 게일(1911)에서 가장 높은 등재율을 보이고, 게일(1911)에 수록된 외래어는 게일(1931)에서 가장 높은 등재율을 보인다. 이는 게일(1911)과 게일(1931)이 게일(1897)을 개정 중보한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게일(1931)은 김동성(1928)과 가장 높은 상호 등재율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두 사전에서 개념어에 해당하는 서구어의 비중이 여타 사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존스(1914)에 등재된 외래어 목록의 경우 언더우드(1925)와 게일(1931)에서 가장 높은 등재율을 보이는데, 이는 존스, 언더우드, 게일이 모두 개신교 선교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호 등재된 서구어 중 종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VII. 맷음말

이 글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9종의 한영·영한 대역사전에 출현하는 외래어 목록을 표기 방식과 조어 방식, 의미 범주, 출현 횟수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운론적 특징, 외래어의 유입 경로, 동시대에 간행된 문헌들과의 상관관계를 미처 다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를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 이 글에

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각 사전에서 수집된 목록의 수를 바탕으로 하여 1910년대에 등재된 외래어의 수가 급증했고,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까지 이어져, 이 시기에 외래어가 전체 사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전에 따라 3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 각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를 살펴본 결과, 1900년대 초반까지 간행된 사전에서는 한자로 음역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1910년 이후 간행된 사전에서는 한글로 음역된 외래어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1920년대 이후의 사전에서는 그 비중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일본어의 음절 구조 방식에 따라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어 방식과 관련하여 각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를 살펴본 결과, 외래어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이 중 서구어 전체가 음역되고 그에 한자어나 고유어 형태소가 덧붙여진 유형 2와 외래어의 축약형에 한국어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유형 4, 유형 5에 해당하는 외래어의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서구어 전체가 음역되어 외래어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유형 1과 서구어의 구성 성분 일부는 외래어로, 일부는 한자어나 고유어로 번역된 유형 3과 같은 조어 방식으로 형성된 외래어의 수는 후기에 간행된 사전일수록 크게 늘어났다.

의미 범주와 관련하여 각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를 살펴본 결과, 초기 사전들에서 음역된 외래어의 대부분이 구체어, 그중에서도 지명과 같은 일반어에 속했으나, 1910년대에 들어서 구체어 중에서도 전문어에 속하는 외래어의 수가 증가하고 개념어에 속하는 외래어도 등재되었다. 특히, 계일(1911)의 경우 전문어 중에서 화학 관련 원소명이 70%를, 존스(1914)에서는 전문어 중 기독교 관련 어휘가 80%를 차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어 중 일

반어의 경우 1910년대의 사전까지만 해도 80% 이상이 지명에 해당했지만, 1920년대의 사전들에서는 그 양상이 달라져 언더우드(1925), 김동성(1928)에서 2/3에 달하는 외래어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구체어에 속한다. 또한 1920년대 이후의 사전에서 수집된 외래어 중 개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언더우드(1925)는 28%, 김동성(1928)은 41%, 계일(1931)에서는 33%로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출현 횟수와 상호 등재율과 관련하여 각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를 살펴본 결과, 5종 이상의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지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3종, 4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서구어의 경우, 여전히 지명이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1920년 이후에 간행된 사전이 포함된 경우, 물명, 단위어, 개념어 등 다양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예가 많다. 2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서구어의 경우, 1910년대에 간행된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계일(1911)에서는 학명이, 존스(1914)에서는 종교 관련 어휘가 압도적으로 많고, 1920년대 이후에 간행된 사전들에서는 언더우드(1925)에 등재된 외래어의 경우 단위어나 물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김동성(1928)과 계일(1931)에만 실린 외래어의 경우 여타 사전들과 다르게 개념어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각 사전에 출현하는 외래어의 상호 등재율을 살피면, 언더우드(1890), 스콧(1891), 호지(1902)의 경우에는 다른 사전에 등재된 목록 수가 대체로 비슷한 반면, 계일(1897)은 계일(1911)에서, 계일(1911)은 계일(1931)에서 가장 높은 등재율을 보이는 반면, 계일(1931)은 김동성(1928)과 가장 높은 상호 등재율을 보이는데 두 사전에서 개념어에 해당하는 서구어의 비중이 여타 사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존스(1914)에 등재된 외래어 목록의 경우 언더우드(1925)와 계일(1931)에서 가장 높은 상호 등재율을 보이는데 이 중 대다수가 기독교 관련 어휘에 속한다. 이는 세 사전의 편찬자가 모두 개신교 선교사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김동성, 『最新鮮英辭典』, 京城: 博文書館, 1928(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 Gale, James Scarth, 『韓英字典』, Yokohama: Kelly & Walsh, 1897(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 Gale, James Scarth, 『韓英字典』,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1911(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 Gale, James Scarth, 『韓英大字典』,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31(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 Hodge, John W., *Corean Words and Phrases: Being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 (2nd ed.), Seoul: The Seoul Press-Hodge & Co., 1902.
- Jones, George Heber, 『英韓字典』, Tokyo: Kyo Bun Kwan, 1914(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 Scott, James,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 Underwood, Horace Grant, 『韓英字典』, Yokohama: Kelly & Walsh; London: Trubner & Co., 1890(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 Underwood, H. G. & Underwood, H. H., 『英鮮字典』,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5(황호덕·이상현, 2012 영인본).

2. 논저

- 강신항,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2, 1985, 23~36쪽.
- 김민수, 『국어정책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 김수현,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외래어 표기 분석, 『이화어문논집』 21, 2003, 249~271쪽.
- 김수현,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외래어 표기 연구, 『이중언어학』 27, 2005, 41~58쪽.
- 김한샘,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인문언어학적 연구」, 『배달말』 55, 2014, 25~54쪽.

- 김한샘,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반교어문연구』 42, 2016, 177~196쪽.
- 남광우,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국어국문학』 68·69, 1975, 297~302쪽.
- 박영섭, 「개화기 외래어 표기에 대한 고찰」, 『어문론집』 17, 1984, 21~33쪽.
-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5: 외래어 편』, 서울: 박이정, 1997.
- 박창원·김수현,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 2004, 59~102쪽.
- 심재기,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지식과교양, 2011.
- 안예리, 「1930년대 사전의 외래어 수용 양상: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과 조선어사전 (1938)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51, 2020, 7~34쪽.
- 이기문,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국어국문학』 68·69, 1975, 296~297쪽.
- 이병근, 「개화기의 어문정책과 표기법 문제」, 『국어생활』 4-4, 1986, 24~45쪽.
- 이상억, 「외래어 표기법 문제의 종합 검토」, 『말』 7-1, 1982, 57~75쪽.
- 이상혁, 「외래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5, 2002, 101~123쪽.
- 이종극, 『鮮和兩引 모던朝鮮外來語辭典』, 京城: 漢城圖書, 1937.
- 이준환, 「池錫永『兒學編』영어 어휘의 한글 표기와 국어의 음운론적 대응 양상: 자음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사연구』 18, 2014, 249~292쪽.
- 이희승, 『국어학 논고 1』, 서울: 을유문화사, 1959.
-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이현복·임홍빈·김하수·박형익,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태학사, 1997.
-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18-4, 2008, 5~32쪽.
- 정동경, 「한국어 대역사전 비교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간행된 한영사전의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0, 2020, 51~96쪽.
- 정희원,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2004, 5~22쪽.
- 조남호, 「한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 39, 2014, 13~38쪽.
- 한성우, 「개화기 신문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어문학』 95, 2007, 281~309쪽.
- 한성우, 「개화기 외래어 표기의 음운론」, 『우리말글』 49, 2010, 63~86쪽.
- 황호덕·이상현, 『한국어의 근대화 이중어사전 1-11(영인편)』, 서울: 박문사, 2012.

3. 기타

- 국사편찬위원회 원문 검색 서비스,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ck.history.go.kr>.
- 김태종, 「신어 외래어에 대하여(1)」, 『한글』 4-1(1936년 1월호), 560~562쪽.

김태종, 「신어 외래어에 대하여(2)」, 《한글》 4-6(1936년 6월호), 87~88쪽.

김태종, 「외래어에 대하여(3)」, 《한글》 4-11(1936년 12월호), 282~285쪽.

이극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한글》 3-6(1935년 7·8월호), 357쪽.

이희승, 「외래어 이야기」, 《춘추》 2-3(1941년 3월호), 258~273쪽.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근대 이행기의 9종 한영·영한 대역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를 분석하여, 시기별 변화와 그 특징을 규명했다. 첫 째, 외래어 수는 1910년대에 급증했고, 1920~1930년대에는 사전에 따라 외래어 비중이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했다. 표기 방식 면에서는 1900년대 초까지는 한자 음역이 주류였으나, 1910년대 이후부터는 한글 음역이 점차 늘어나 1920년대 이후에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본어 표기 체계를 따른 것이 확인된다. 조어 방식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단일어로 된 서구어를 그대로 음역한 유형, 복합어나 구로 된 서구어의 일부는 음역하고 일부는 한국어 단어나 형태소로 번역하여 결합한 유형은 시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증했다. 의미 범주에 따른 분류에서는 초기에 간행된 사전에서는 지명 등, 구체어의 비중이 커졌으나, 1910년대 이후 전문어와 개념어로 확대되었다. 특히 게일(1911)에서는 화학 원소명이, 존스(1914)에서는 기독교 관련 어휘가 다수를 차지했다. 1920년대 사전에서는 일상생활 관련 구체어와 개념어 비중이 증가했다. 출현 빈도 면에서는 5종 이상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지명이 주류를 이루었고, 3, 4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외래어는 다양한 의미 범주에 속했다. 2종의 사전에서 출현하는 외래어는 게일(1911)은 화학, 존스(1914)는 종교, 언더우드(1925)는 단위어와 물명, 김동성(1928)과 게일(1931)은 개념어 비중이 높았다.

투고일 2025. 6. 27.

심사일 2025. 7. 31.

제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외래어(loanwords), 서구어(Western languages),

한영 대역사전(Korean–English dictionary), 영한 대역사전(English–Korean dictionary),

19세기 말~20세기 초(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음역(transliteration)

Abstract

A Study on Loan Words in Korean–English Dictionaries Published between the Late Nineteenth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ies

Jung, Dongkyong

This study analyzes loanwords listed in nine Korean–English and English–Korean bilingual dictionaries published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ies to identify chronological changes and key characteristics. First, the number of loanwords surged in the 1910s, and their proportion in dictionaries increased threefold to tenfold in the 1920s and 1930s. In terms of orthography, transliteration based on Chinese characters dominated until the early 1900s. However, after the 1910s, Hangul-based transliterations became more prevalent, accounting for over two-thirds of the transliterations by the 1920s, with some reflecting Japanese phonological patterns. Five word formation types were identified, with a notable increase in fully transliterated Western words and hybrid forms combining transliteration and Korean morphemes in the later periods. Semantically, early dictionaries focused on concrete general terms such as place names, but from the 1910s onwards, technical and conceptual terms expanded significantly. Notably, Gale (1911) emphasized chemical elements, whereas Jones (1914) featured many Christian terms. In the 1920s, dictionaries increasingly included both concrete terms and abstract concepts. Regarding frequency, place names dominated among words appearing in five or more dictionaries, while those in three or four dictionaries, especially in Kim Dong-seong (1928), spanned diverse semantic fields. In the case of loanwords that appear in only two dictionaries, those in Gale (1911) mostly pertain to chemistry, those in Jones (1914) to religion, those in Underwood (1925) to units and material terms, and those in Kim (1928) and Gale (1931) to conceptual vocabulary.